

**유로지역, 2024.2/4분기 GDP성장률(전기비) 0.3% 기록**

□ 유로지역의 2024.2/4분기 GDP성장률(계절조정계열 전기비, 속보치)은 0.3%로 전분기(0.3%)에 이어 **완만한 회복세**를 시현(7.30일, EU통계청 발표)

- 견고한 고용 상황 및 디스인플레이션 진전 등으로 가계의 실질소득이 늘어나면서 소비를 중심으로 개선 흐름이 지속
- 국가별로는 독일(0.2% → -0.1%)이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는 등 부진하였으나 스페인(0.8% → 0.8%)은 견조\*한 모습을 보였으며, 프랑스(0.3% → 0.3%), 이탈리아(0.3% → 0.2%) 등도 완만한 개선세를 유지

\* 관광업을 중심으로 서비스업# 생산이 크게 증가한 데 주로 기인  
 # 스페인 서비스업PMI: 2023.12월 51.5 → 2024.3월 56.1 → 6월 56.8 (기준치 50)

□ 유로지역 2/4분기 성장률은 시장 예상치(블룸버그 평균 0.2%)를 소폭 상회하였으며, 하반기에도 완만한 성장 흐름\*이 이어질 전망

\* 2024년 성장률 전망치: IMF 0.9%(7월), ECB 0.9%(6월), EU집행위 0.8%(5월)

- 실질임금 상승 등에 따라 소비 증가세가 계속되는 가운데 대외수요 회복 등으로 수출도 늘어날 전망
- 다만 여전히 긴축적인 통화정책, 정치·경제적 불확실성 증대 등으로 가계 저축률이 높은 수준을 유지\*하고 투자도 큰 폭의 반등은 어려울 것으로 보여 개선 강도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

\* 2024.2/4분기 유로지역 저축률은 15.0%로 팬데믹 이전인 2015~2019년중 평균 12.6%를 큰 폭 상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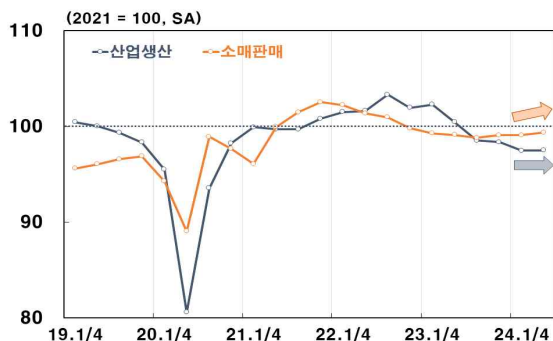
**유로지역 주요국 GDP성장률**

(전기대비, %)

	23.2/4	3/4	4/4	24.1/4	2/4
■ 유로지역	0.1	0.0	0.0	0.3	0.3
(독 일)	-0.1	0.2	-0.4	0.2	-0.1
(프 랑 스)	0.6	0.1	0.4	0.3	0.3
(이탈리아)	-0.1	0.3	0.1	0.3	0.2
(스 페 인)	0.5	0.5	0.7	0.8	0.8

자료: EU통계청, 각국 통계청

**유로지역 산업생산 및 소매판매 지수<sup>1)</sup>**



주: 1) 2024.2/4분기는 4~5월 평균 기준  
 자료: EU통계청